

- 一、純粹性的堅持
- 二、自主性的確立
- 三、時代精神的創造
- 四、開拓者로서의實踐

提言 本道觀光廣告宣傳에 對하여

(2)



〈商・3〉

方案(本道觀光廣告宣傳의 새로운 手段)의 收效如何은 觀光事業이長期的이고 持續的인가 또는 觀光客의多少을 決定하는 重要한 因子를 알았으나 이러한 觀光事業에 있어서 莫重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광고선전이다 본道の 觀光事業을檢討하여 보고 되고 있는比重은檢方案을 模範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本道の 관광광고선전에 관한 概算(計劃)을 보면 三六三%에依해서 光高線전一九〇六年度부터一八九六年末까지의 實數는 관광선전출발금이 八千二百五〇圓이며觀光行事가 五回 觀光案内板設置十二點이다 그리고 第二次經濟開發五個計劃期間인 一九六七年

이고 이나를 충분히考慮한다에 決定해야 하는 것이다

其他 도시 있는 마와 같이自然觀光文化 風景 行狀等一般의 문화 施設을 제공되고 있지 않다 特異한 地形城址만이라도 많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려한 廣告宣傳 材料의 選問題外에 여러가지 各邑 다른곳에서는 觀光客에 대한

金

總團副會長선거를마치고



濟州大學의 發展의

充實

심부름꾼이 되자

於英間 캠퍼스 生活
한을 하지도 三年이
전 歲月의 호를속에
名譽利慾이란 人間의
本能 때문에 나타나
한것없이 지난六月選
學를 勝려히 이글기
하여서奮鬥努力結
果榮光은 學兄 여
여 참되고 充實한심
부류군이 될수 있겠
는가를 재산 生現
濟州道의 發展
展은 濟州大學의 發展
學兄 여 榮光은 學兄 여
必要로 하지 않을수
없음이다
지난 몇년동안 學
生의 生活活動은 主權을
한 濟州大學의 發展
式으로 일을 處理하
고져 합니다
論하고 決定하며
開하는 民主主義의 公
式으로 일을 處理하
고져 합니다
이런 構成된 學
新幹部들은 보다
로한計劃에서 일을
저질러놓고 結論에도
박하지 않은채 그때
로 默認해 버리는傾
向이 있는의 신민주
生活에서는 어떤일을
하기위해서는 体系的
으로 行政政策을完
璧하게 終結을 지은
(總學生會副會長
閔文科 三年)

日本大學生の登山 소개



漢陽山 山岳部의 학술 산악단체인 천
 4) 君兄 東國(土物)3) 君 吳永
 福(林)3) 君 및 山友會의 夫
 福(林)3) 君 및 山友會의 夫
 (副會長)3) 生兄 및 趙性休 朴
 炳鎬 姜益盛君들이 참석했고 동
 年 및 同會는 夫宗休 生兄이 말
 漢陽山 山岳部의 會長인 金宗休
 山岳大學 山岳部에서 처음으로
 (히말라야)山을 가겠다고 포스터
 가장대제의 名門 大學이다.
 一九三二 年 8월 1日(하이라이
 스키)가 있었다.
 山악부가 이 때 漢陽山을 탐방했다.
 山岳의 研究를 알은 朴理學은
 3) 然 諸에서 金永福 부러
 同시에 來 보았었다.
 따라서 2) 그들의 山악행
 동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이 많기 때문에 저민을 빌려서
 그들의 이모저모를 알리고자 하
 다. 그들이 항상 움직이는 것을
 10월의 하 일이다. Ch

日本大學生의 선후배

이상의 신배 관계는 근대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문화적, 사회적
정제로 하기에 감비한것
을 미리 치우는 것이었다.
그들의 수면시간은 7時間으로
一學生生은 언제나
간이 운영된다. 발을 짓기위
해서 일어나야 하기때문
이다.
그들에겐 무리가 없다.
그들의 한 발자국엔 과학적
지식의 밑받침을 해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과학적인 하
보담은 빈틈없이 돌아가는 기
점온내지 오우一時
한도칠 곳으로 돌
라듯 생각로
그들과 이야기가
은 의문문제였다.
그들의 목표는 「에
를 높이고 높은 사
복하고 산의 신

오락·健康·宗教·經濟·政治·社會

[illegible]

廣告相對方에 따라 內容·方法 달라야

[illegible]

室內·外用으로 子景 作成

[illegible]

新任 編輯者の辯

岩이 본 濟州大學이
 상정된데는 그우엇
 에 비할가. 특히나
 부러진 나긋지름을
 에 들고 차라리 그
 것이 최초리해되고
 내일수 없는 갈한
 내와 충분한 생활인
 을 남기는 생활속에
 비록이는 知性的의
 타리 「응무하는
 것이라.

○ 인 사

濟大 八백전아들이
그 억센 호음속에서
살아야 하는 本 大廳
新聞의 윤리는 의의
로운 것이리라. 강한
전율을 몸에 느끼며

同窓會獎學基金喜捨芳名公告

十日 現在까지 基金을 喜捨하여 주신 同門 여러분을
名을 이에 公告하며 깊은 感謝를 올립니다.
(이 後에 喜捨하여 주시는 同門들의 芳名은 다음 號
公告하겠습니다.)

濟州大學同窓會長 金燦治

同	一金 貳萬圓	李泰珍	一金 貳萬圓	姜斗珍	一金 壹萬圓	梁
同	一金 五千圓	徐相信	一金 五千圓	韓興植	一金 五千圓	河
同	同	趙昌候	一金 壹萬圓	金致炯	同	徐
同	同	金杜治	同	玄鶴淳	同	鄭
同	一金 壹萬圓	張泰炫	一金 五千圓	韓昌榮	同	李
同	同	金順澤	同	車柱弘	一金 壹萬圓	白
同	同	洪性彰	同	文容錫	一金 五千圓	許
同	同	高碩燦	一金 壹千圓	文在錫	同	河
同	同	李君普	同	金仁章	一金 壹千圓	李
同	一金 壹千圓	金仁圭	一金 參千圓	金昌壽	同	慎
同	同	金文河	同	邊萬根	一金 貳千圓	金
同	同	高昌保	同	金南植	同	金
同	同	金文玉	一金 壹千圓	梁燦棚	同	梁
同	同	玄尙洙	同	金孝奎	一金 貳千圓	崔
同	同	宋昌憲	同	金泰坐	一金 壹千圓	李
同	同	金文豪	同	林柄敦	同	吳
同	同	任君珍	同	宋根守	同	金
同	同	金元赴	一金 參千圓	吳文生	同	李
同	同	高景澤	一金 壹千圓	玄明秀	同	高
同	同	朴喜奉	同	朴才滿	同	金
同	同	金杜植	同	金鉉禹	一金 參千圓	玄
同	同	申守容	同	梁桂豪	一金 壹千圓	梁
同	一金 貳千圓	金光昊	同	金龍昊	同	金
同	同	申璐俊	同	申道亨	同	金
同	同	梁敬勛	同	邊昌先	同	金
同	同	金政澤	同	高錫祐	同	吳
同	同	梁時旭	同	康昌炫	同	許
同	同	梁時煥	同	梁昌玟	同	高
同	同	文洪球	同	梁昌先	同	康
同	一金 參千圓	林奉元	同	吳行根	同	康
同	同	金秉彥	同	秦善京	同	朴
同	同	玄學哲	同	洪泰然	同	張
同	同	秦聖麒	同	吳柄洙	同	金
同	一金 貳千圓	尹京湖	一金 貳千圓	吳炳錫	同	康
同	同	梁東義	同	張濟春	同	康
同	同	金性日	同	姜弘基	同	夫
同	同	高昌實	同	洪雅三	同	李

